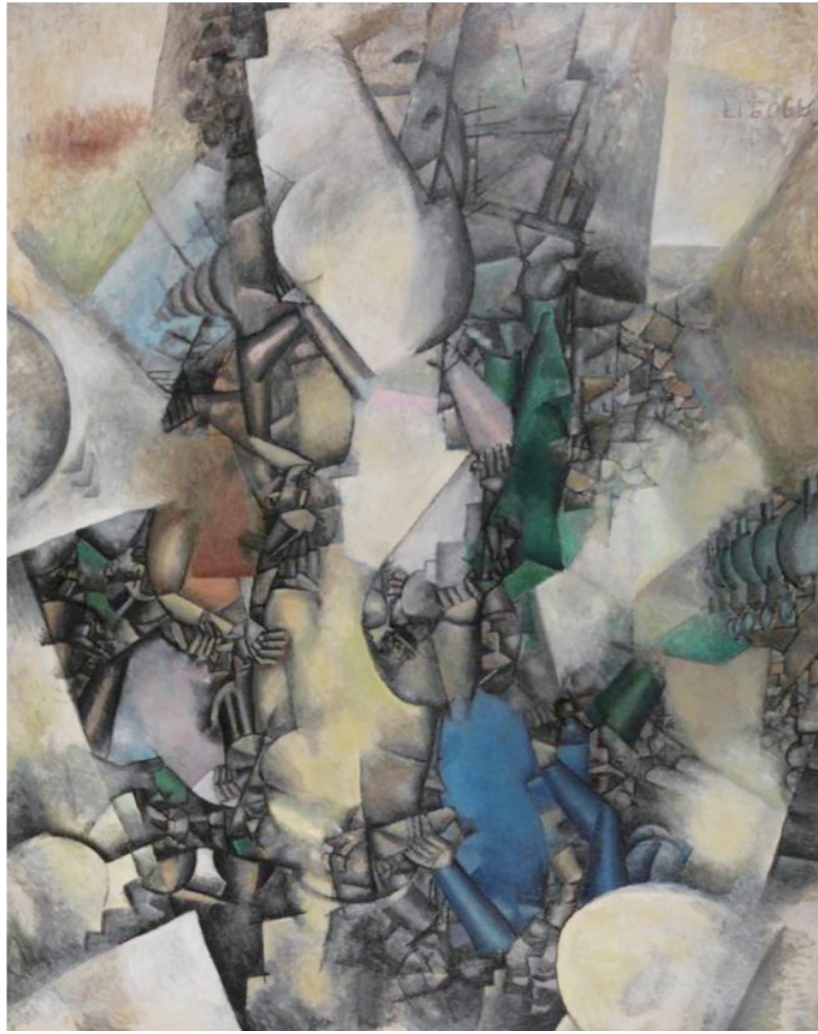




파블로 피카소 작 '여인의 흉상'.



페르낭 레제 작 '결혼식'.

佛 풍피두 입체파 명작, 서울서 본다

20세기 초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 는 가로로 긴 낮은 건물 한 채가 있었다. 건물주는 방에 가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쪼개 세를 놓았고, 싼값에 돈 없는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다. 시인 막스 자코브는 가로로 길게 늘어서 방이 다다다다 붙어 있는 이 건물이 센강의 '세탁선'처럼 생겼 다며 '비토 라부아르'(세탁선)라 불렀다. 스페인 소도시 말라가에서 태어난 파블 로 피카소도 1904년 세탁선에 방을 얻어 작업실로 쓰기 시작했다. 이곳에서 프랑 스 출신 화가 조르주 브라크와 만났다. 두 사람은 사물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새로운 회화 언어를 만들고 발전시켰다. 20세기 초 서구 미술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꾼 혁명적 사조로 평가받는 입체주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.

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관 조르주 풍피두 국립예술문화센터(풍피두센터)와 한화문화재단이 파트너십을 맺고 문을 연 미술관 '풍피두센터 한화'가 다음 달 4 일 개관전으로 '큐비스트: 시각의 혁신가 들'을 개최한다. 전시는 10월4일까지 진행 된다.

피카소와 브라크를 비롯해 페르낭 레제, 프랑시스 피카비아 등 입체주의를 대표하 는 작가 43명의 작품 91점을 선보인다. 모 두 풍피두센터 소장품이다.

전시를 기획한 크리스티앙 브리앙 풍피 두센터 근대 컬렉션 총괄 큐레이터는 "풍

'풍피두 한화' 내달 4일 개막전 입체주의 작가 43명 91점 선배 피카소 '여인' 브라크 '기타여인' 등 8개 섹션 나눠 연대기 별로 전시



조르주 브라크 작 '기타를 든 여인'.

피두센터가 매우 뛰어나고 비범한 입체주의 작품들을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어 한국 관객에게 선보일 첫 전시로 입체주의를 선택했다"며 "입체주의는 20세기에 전개 된 모든 미술 발전을 파악하는 데 필수 양식"이라고 설명했다.

전시는 입체주의가 탄생한 1907년부터 1927년까지 파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입체 주의 흐름을 8개 섹션으로 나눠 연대기 순 으로 조망한다.

피카소의 1907년 작 '여인의 흉상'은 입 체주의의 시작과 맞닿아 있는 작품이다. 피카소의 걸작 '아비뇰의 처녀들'(1907)과 같은 시기에 만든 작품으로 아비뇰의 처 녀들에 등장하는 인물과 닮았다.

아프리카 가면이 나타나는 흉터 문양을 연상시키는 채색 기법을 차용해 재해석 한 방식을 보여준다. 강렬한 눈과 기하학 적으로 강조된 코를 지닌 타원형 얼굴이 특징이다.

피카소의 1910년 작 '기타 연주자'는 그 의 입체주의 작품이 추상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보여주는 작업이다. 기타 연주자의 모습은 수직선과 수평선, 사선으로 표현 되고 머리는 짧은 원통 형태로 축약됐다. 기타는 화면 중앙에서 악기의 목을 연상 시키는 몇 번의 붓질로만 표현됐다.

이런 모습은 브라크의 작품에서도 나타 난다. 1911년 작 '원형 협탁'은 탁자 위에 놓 인 오브제를 수많은 기하학적 과편으로

쪼개 원형 협탁으로 보이는 반원 형태 위 에 쌓아 놓았다. 피카소가 인물화로 입체 주의를 표현했다면 브라크는 정물화를 통 해 대상을 충실하게 모방하는 환영주의에 서 멀어졌다.

1912년 작 '기타를 든 여인'은 과편화된 기하학적 면들 사이에서 여인의 검은 눈이 나 미소 짓는 입술, 머리카락 등이 슬며시 드러나는 작품이다. 화면 중앙 하단에는 기타의 몸통과 줄이 비교적 분명하게 그 형태를 드러낸다.

브라크는 나뭇결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금속 빗으로 표면에 결을 내는 방식을 사 용했다. 기타 아래는 신문지가 등장한다.

실제 신문을 붙인 것은 아니지만 브라크 가 개발한 신문지나 악보를 붙이는 '파피에 콜레(Papier Collé)' 기법을 떠올리게 한다. 두 사람의 입체주의는 다른 예술가들에 도 영향을 미쳤다.

페르낭 레제의 1912년 작 '결혼식'은 전 통적 원근법을 산산이 깨뜨린 입체주의의 선언문과 같은 작품으로 평가된다. 신랑 신부와 결혼식 참석자들을 묘사한 작품 으로 철저히 과편화된 형태의 넓은 색면 들로 표현됐다.

로베르 들로네와 프랑시스 피카비아, 나 탈리아 곤차로바, 후안 그리스 등 피카소 의 영향을 받아 입체주의를 발전시킨 작 가들의 작품도 관람할 수 있다.

글·사단연합뉴스

'취사병' 박지훈 효과 원작 웹소설·웹툰도 조회수 동반 폭증

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한 티빙 오리지널 '취사병 전설이 되다'가 큰 인기를 끌면서 원작을 다시 찾아보는 독자도 늘었다.

20일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'취사병 전설이 되다' 공개 후 7일간(11~17일) 동명의 원작 웹소설 조회수가 맛보기 영상 공개 전 7일(4월 2~8일) 대비 170 배 증가했다. 같은 기간 웹툰의 조회수 는 6배 증가했다.

'취사병 전설이 되다'는 총 대신 식칼 을, 탄피 대신 앞치마를 두른 이등병 강성재가 마치 게임처럼 요리 능력을 얻은 뒤 '전설의 취사병'으로 거듭나 는 과정을 그린 군대 배경의 판타지물 이다.

2017년 제이로빈 작가의 웹소설로 출 발해, 2019~2023년 제이로빈 글·이진 수 그림 작가의 웹툰으로 공개돼 인기 를 얻었다.

최근 장황준 감독의 영화 '왕과 사 는 남자'로 약 1684만 명의 누적 관객 을 모으며 '천만 배우'가 된 박지훈 주 연의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돼 tvN에서도 동시 방영되고 있다.

실사화된 '취사병 전설이 되다'는 방 송 4회 만에 심상치 않은 인기를 얻 고 있다.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에 따르면 이 작품 전국 시청률은 11일 첫 회가 5.8%로 출발한 후 19일 4회가 7.9%까지 올랐다.

티빙에서는 공개 첫 주 유료 구독 기 어 1위를 기록했다. 최근 3년간 공개된 티빙 드라마 콘텐츠 중에서도 공개 일 주일 차 기준 최고 구독 기여 성과를 올렸다.

처연한 단종 이미지를 벗고 이등병 으로 돌아온 박지훈 등 배우들의 생동 감 넘치는 연기과 B급 코미디의 맛을 살린 연출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.

또한 군대라는 현실을 배경으로 상 태 장, 퀘스트(임무) 등 게임적 설정을 추가해 흥미롭게 구현된 현실형 판타 지도 관심을 끄는 요소다.

강력한 지적재산권(IP)과 섬세한 실 사화가 원작 팬들과 원작을 접하지 못 한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킨 다는 평가다.

원작의 제이로빈과 이진수 작가는 연합뉴스에 "웹소설과 웹툰 속 상태 창과 화려한 요리들이 드라마라는 멋



배우 박지훈이 주연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'취사병 전설이 되다'의 인기로 원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. 드라마 스틸컷. 티빙 tvN

진 포맷으로 구현된 것을 보며 저희 두 사람 모두 무한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 다"며 "주인공 강성재 역을 맡은 배우 박지훈이 캐릭터의 성장 서사를 놀라 운 몰입도로 그려내며 원작 이상의 생 동감을 불어넣어 줘 감탄하며 시청하 고 있다"고 말했다.

이어 "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독자와 호흡했던 IP가 이토록 큰 시너지를 내 며 확장되는 과정은 원작자로서 매우 뿌듯하고 소중한 경험"이라며 "드라 마를 통해 '취사병 전설이 되다'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, 웹소설·웹툰 플 랫폼을 방문해 원작 글과 그림이 합 께 빛어낸 또 다른 재미도 함께 즐겨달 라"고 덧붙였다.

제이로빈은 "한국 고유의 정서가 담 긴 콘텐츠가 전 세계의 공감을 얻고 있는 지금, 이 순간이 창작자로서 만기 지 않을 만큼 감격스럽다"며 "우리 작 품이 대중에게 웃음과 위로를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"고 말했다.

연합뉴스

부자의 길을 함께 갑니다

대한민국 첫 '부의 지도' 서비스

부자의 성(城)
서초 강남 용산 SKY!!!
 스카이데일리가 새로운 부의 길을
 놓습니다
 누구나 그 길을 갑니다
 존경 받는 부자의 모습입니다